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최근 예멘인 수백 명이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여론조사 기관은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 조사를 의뢰받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에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Screening test)

Q1) 귀하께서는 이전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찬반’에 관한 여론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Q2)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귀하의 만 나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 ()세

※ 다음 화면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이슈를 다룬 한 매체의 뉴스 기사가 제공됩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응답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 기사를 먼저 읽으신 후 이어지는 설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을 위하여 언론사명과 기자 신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이나 거부냐’... 찬반 논란 가열

기사입력 2018-06-19 10:21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 259 | 💬 373

요약본 | 가 | 📖 | 📧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시민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그간 난민 유입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수백 명이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가 새삼 화두로 대두했다.

예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 간 내전이 지속돼 1만 여명이 사망하고 200만 여명이 난민으로 전락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았다.

이들 예멘 난민 중 일부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쏟아지는 난민으로 국내 치안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UN의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지난 2012년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UN의 난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지와 반발이 공존하는 바 난민 수용 해결 방안

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민족신문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과거엔 왜...」 기사를 소개합니다. 팩트체크 기사를 소개합니다.

가장

정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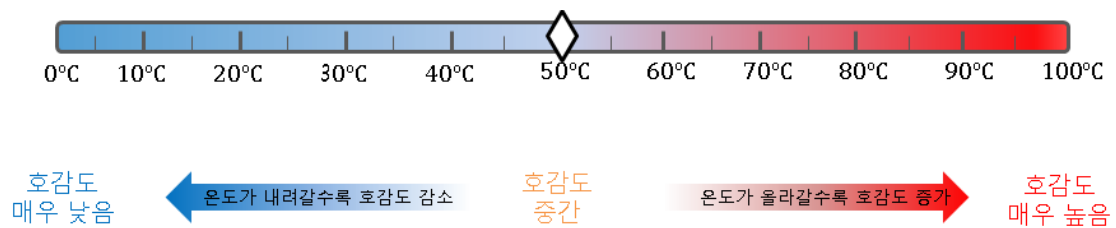
50

1.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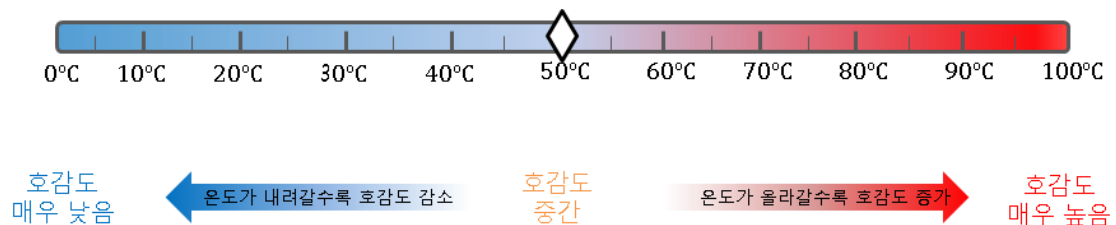
- ① 찬성한다.
- ② 중립이다.
- ③ 반대한다.

※ 귀하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호감 온도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감(好感) 온도계란 특정 이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호감 온도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호감 온도계는 0°C-100°C로 표시되며, 0°C는 호감이 전혀 없는 상태, 50°C는 중립, 100°C는 호감이 매우 높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래 그림의 다이아몬드 커서를 이동시켜, 이슈에 대한 귀하의 호감 온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커서는 5°C 단위로 움직입니다.



2. 귀하는 앞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1번 문항에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호감 정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제시된 커서를 움직여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귀하의 호감 온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성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자 2. 여자
-

4. 귀하의 직업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무직, 회사원 등 기업종사자
2. 공무원, 연구원, 교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
3.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기관 종사자
4.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5. 자영업 종사자
6. 인턴 및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 등)
7. 학생
8. 구직자 및 무직
9. 주부
10. 기타 ()
-

5.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재학
3. 대학교 졸업
4. 대학원 재학 이상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